

노동운동가 최 동씨의 삶과 죽음

‘도덕적 승리’의 길을 걷고자 했던 노동운동가 최 동씨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죽음은 자살인가, 정치적 타살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그의 치열했던 삶을 조명해본다.

최진섭(본지 기자)

아들 먼저 상여 태워 보내는 어머니

지난 8월 11일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석조전물 앞에서 이 학교 국문과 출신 최 동씨(30)의 장례식이 열렸다.

“88년 5월 광주에서 오월 영령의 영정을 안고 꽃상여를 앞세우며 싸움을 하던 네가 이제는 꽃상여를 타고 가는구나. 운동하는 우리가 언제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할 수 있었겠느냐는 가는 길마저 불효를 하는구나. 통일된 날 너의 시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백두에서 한라까지 어머님을 무등 태워 걸어보자꾸나.”

최 동씨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같이 한 고남석, 이성우씨가 울부짖음으로 조사를 읽는 동안 영결식장은 비장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최씨의 어머니 김순옥씨(54)는 아들을 먼저 상여 태워 보내는 기막힌 슬픔과 분노에 몇번을 혼절했다 깨어나곤 했다.

“아이고 우리 동이 불쌍해라. 약 하나 안 먹고 크던 애가 제 명대로 못 살고 죽다니, 아이고 아이고.”

최 동씨는 8월 7일 성동구 응봉동 자택에 인접한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층 강의실에서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했다. 그의 가족들은 “지난해 4월 인노회 사

건에 연루되어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자살했다”며 “고문타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가족에게 “저들의 목적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폐인이나 다름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그런데 이 유서는 일반적인 시국관련 유서와 상이한 점이 있다. 흔히 자신의 죽음으로 투쟁의 돌파구를 만들고자 할 경우 정치적인 구호를 함께 적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최 동씨의 경우 그러한 정치성 구호를 적지 않았다. 오히려 유서 곳곳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임을 느끼게 하는 구절마저 있다. 이 때문에 그의 분신은 자칫 ‘항거’보다는 신명을 비판한 개인적인 ‘자살’로 비쳐질 수도 있다.

심산연구회 결성 주도

10년 동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한결같이 몸바쳐온 최 동씨는 죽는 순간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못했다. 유서조차 정신이 파괴된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기에 그가 품고 있던 진심을 모두 담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그가 죽음으로 말하려 했던 바는 무엇일까. 그가 살아온 치열한 삶의 궤적 속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 동씨는 민주화열기가 한창이던 ‘80년 서울의 봄’인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간 후 곧바로 성균관대의 대표적인 이념서클의 하나였던 동양사상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이와 함께 성균관대 행서 문학회에도 들어가 문학수업을 하기도 했다.

80년 3월 성균관대에서는 전국 최초로 연일 수천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병영집체거부운동이 벌어졌다. 최 동씨는 이때도 중심적으로 활동하였는데 3차입소까지 거부하고 마지막 남은 수집명 중에 속했다.

5·17 쿠데타 이후 동양사상연구회 등의 진보적인 이념서클은 비공개조직으로 움직여야 했다. 이에 최 동씨는 합법서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산연구회라는 공개서클 결성을 주도한다. 심산은 성균관대의 설립자이며 반제반독재 운동가인 김창숙 선생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81년 3월 창립한 이 서클에서 그는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동기들의 학습까지 지도해냈다.

그 당시 그는 국문과 학회에서 최매니웅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란 혁명의 지도자인 호메이니의 강렬한 인상과 지도력을 닮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서클에서는 ‘마동’이라는 애칭도 얻게 된다. 중국의 마오쩌둥에서 따온 마동이라는

칭호는 외모보다는 그의 정치사상이 탁월하고 논리전개가 '칼' 같은 데서 나온 것이라 한다.

최 동씨는 83년 5월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학내의 시위를 주동하다 구속되어 그 첫 감옥생활을 시작한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지 90년 4월호 '학생운동야사'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당시 성균관대는 학생운동권에서 '테러리스트'로 통했는데 그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식칼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최 동씨인 것이다.

실제 그는 매우 엄격하고 차분하면서도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서울 환일고 재학 시절 그는 친구들 사이에 '최동장군'으로 불렸다고 한다. 등산·낚시·기타는 물론 십팔기까지 배운 그가 동료들 사이에서 '대장노릇'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83년 5월 시위주도 혐의로 최 동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9개월간 복역했다. 여동생 최숙희씨는 최 동씨의 최후진술 장면이 눈에 선하다고 말한다.

“법정에 선 오빠는 정말 꾀꾀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적 승리, 도덕적 승리를 해야 한다는 귀절입니다. 그 순간 나도 꼭 오빠처럼 살아야지 하고 결심했었죠.”

전두환 정권의 유화조치를 맞아 최 동씨는 84년 2월 8일 석방된다. 그때 감옥에서 출소한 학생들은 정부의 시혜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그는 복학허용이 정부의 개량화조치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하며 복학을 반대하고 노동현장에 투신하기로 작정한다. 이후 최 동씨는 89년 구속될 때까지 응봉동 현대아파트 집을 떠나 부천의 월세방에서 지낸다.



9월11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애국열사 고 최 동 노동자장

복학을 거부하고 노동현장으로

84년 부천의 삼창정밀, 동광정밀 등에서 프레스공으로 일한 것을 시발로 하여 최 동씨는 줄곧 부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부천 삼정동의 (주)세일에 재단사로 취업하기도 했으며 동파이프를 제작하는 극동금속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동씨는 수형전력이 있어 대규모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소규모공장이나 마찌꼬바를 전전했다. 86년경부터는 신원조회가 엄격해져 라이프통상에 입사원서를 냈으나 전력이 발각되어

취업을 못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최 동씨는 간의 현장활동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다. 그와 함께 인노회 활동을 같이했던 박경식씨는 최 동씨의 당시 고민을 다음과 같이 떠올렸다.

“형은 현장에 뿌리박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은 자신이 노동자들보다 가정환경이 유복한 탓이라며 무척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취업이 늦어지더라도 사상무장을 철저히 한 후에 진짜 노동자 생활을 할 결의를 다졌습니다.”

모든 운동가들이 그렇듯이 최 동씨 또한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었다. 더욱이 그는 장손 집안의 장남이었다. 86년도에는 그의 집안에 ‘정치파동’이 일기도 했다. 최 동씨가 부천 노동현장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남동생은 가락동 민정당 정치연수원 점거와 관련 구속·수감되었으며 대학을 졸업한 여동생은 구로공단 전자업체에 취업한 것이다. 어머니 김순옥씨는 10년 동안 최씨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편이었다.

“장남만이라도 집에서 출퇴근하기를 바랬지요. 하지만 그 애가 노동운동을 포기 안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예 부천에다 부엌이 딸린 전세방까지 얻어줬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근 1년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동대문시장에서 포목점하느라 새벽 2시에서 저녁 4시까지 일하고도 하루도 안 빠놓고 면화 다 났지요. 어찌 생각하면 10년간 운동 뒷바라지한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86년경 그는 반제동맹당 사건의 여파로 수개월간 도피생활을 했으며,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인천 지역노동자연맹 준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대통령선거투쟁에 참여했다.

88년 3월 창립한 인노회 결성에 최 동씨는 산파역할을 한다. 인노회 조직활동은 그의 정치적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는 인노회의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선반공으로 다시 공장에 들어간다.

인노회 탄압과 최 동씨의 자해

89년 2월 검찰은 6공 들어 처음으로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하여 인노회 관계자 6명을 구속했다. 인노회가 NLPDR을 이념으로 하는 지하조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관련자



최 동씨는 치안본부에서 수사를 받은 후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었다며 항의문신했다.

들은 인노회는 공개적인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이라며 노동운동탄압을 위한 용공조작책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백영엽 판사는 “인노회가 이른바 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기보다 노동운동을 위한 단체임을 인정”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검찰은 TK 출신의 조희대 판사에게 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인노회 회원으로 수배상태에 놓였던 이성우씨는 예정된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못해 신부 혼자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시대적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동씨도 이 사건으로 89년 4월 28일 부천 심곡동 자취방 앞에서 치안본부 대공3계 요원들에 의해 연행·구속되었다. 이 무렵 그는 도자기 공장인 부천 세라 아트의 민주노조 건립을 위해 조합원 교육에 열중하고 있었다.

최씨는 연행된 후 묵비권으로 버텼으나 수사관들이 친구 결혼식 사진, 이삿짐 나르는 사진 등 한달 이상 미행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30여점을 제시하자 치

밀하게 준비된 조직탄압 차원의 수사임을 간파했다. 이에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고문조작수사를 익히 알고 있던 최 동씨는 동료들이 탄압에 대처할 시간을 벌게 하고 취조에 불응하기 위해 자해를 기도했다. 취조실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짓이긴 것이다. 그러나 경찰병원에서 일곱 바늘을 꿰매는 응급치료를 한 후 조사를 계속 받아야 했다.

최씨는 이후 약 20일에 걸쳐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출소 후 동료들에게 “조사를 받는 기간에 수사관들이 교대로 취조하면서 잠을 안 재우거나, 안기부에 넘기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잠을 못 자게 해 자신의 수면기능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잠안재우기 고문은 일반인들의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다고 한다. 85년 9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서 23일 동안 조사를 받다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켰던 이을호(36) 전민청련 정책실장은 갖가지 고문 중에도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가장 참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 동씨는 연행 21일째인 5월 19일, 정신적 압박감이 극에 달하는 수사과정에서 더이상의 모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또다시 자해를 가했다. 이번에는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칫솔대를 부러뜨려 목부위를 찔렀는데 기도가 1cm 가량 뚫리는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당시 경찰병원 담당의사는 가족들에게 주의깊은 관찰과 치료가 요구된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으나 최씨는 정밀검사를 받아보지 못하고 경찰병원에서 외상치료 후 5월 20일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구치소 수감 후 정신분열증세

구치소로 넘겨진 이후 최 동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계속된 불면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는 이를 사소한

증세로 여기고 학생시절의 투옥경험을 살려 운동과 독서로 계획적인 생활을 했다. 한달 가까이 사회과학 시간서적이나 소설책, 바둑책 등 수십권의 책을 열심히 읽었다.

그런데 7월초에는 심한 발작과 실어 증세로 보름여 동안 고통을 겪었다. 주체할 수 없는 통증과 함께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말을 하는 등 의식과 행동이 유리된 증세가 뒤따랐다. 이같은 증세는 구치소 의무과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이후 나타났다고 한다. 그 때문에 최 동씨는 자신의 불면증, 실어증이 단순한 심리적 불안상태가 아닌 약물투여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약물투여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가족들이 특별면회했을 때 최씨는 “눈만 껌박이고 말을 못했으며 가끔 입을 강제로 벌리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시늉을 했다”고 전한다. 책이나 신문을 전혀 못보는 등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종로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세’라는 진단이 나왔다.

비정상적인 정신상태하에서도 재판은 진행되었다. 최 동씨는 재판정에서 동료들에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무비카메라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 “수용중인 독방에 분말가스가 투여된다” “내 몸에 AIDS균을 감염시켰다”는 발언을 하는 등 심한 피해의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심리과정에서는 거의 한마디도 못했다. 9월 18일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가 결정되자 “이긴 음모다. 이들은 또 나를 이용하려 한다”며 극도의 공포에 떨었다.

싸움의 마지막 무기, 죽음

출소 이후 최 동씨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11월부터 90년 1월까지 종로신경정신



‘애국열사 고 최 동 노동자장’에서 최 동씨의 동료와 어머니 김순옥씨가 오열하고 있다.

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으며, 수전증·기억력감퇴까지 뒤따랐다. 그의 모든 사고는 “자기가 탄 압받은 것을 알아달라” “적들이 나를 무능력하게 만들었다”는 데 집중되었다.

마침내 4월 28일에는 부천 중동에 자취방을 얻어 연탄가스로 자살을 시도한다. 최 동씨가 부천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것에 대해 동료들은 자신이 활동했던 노동현장에서의 ‘귀소본능’이라고 여긴다.

그는 적십자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소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다. 인노회 동료들을 만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진상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천인공노할 치안본부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건강이 좋아져야 자신의 억울함을 폭로할 수 있다며 수영장을 다니거나 인근 뒷산, 한양대로 산책을 다니며 건강회복을 위한 집요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호전될 기미를 보이던 최 동씨는 분신자살 얼마전부터는 상태가 다시 악화되는 듯했다. 그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내가 구속되기 전에는 괜찮았다”

“지금 내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간다” “치본 들어간 이후 내 몸이 망가졌다”며 하소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아마도 이 점이 최 동씨가 죽음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 동씨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누구도 한마디로 단언하지는 못한다. 치안본부는 “구타 등 가혹행위는 절대로 없었다”고 강변했다. 최씨의 담당변호사 역시 육체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최 동씨가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과정에서 병을 얻었다는 사실이며 잠안제우기 등의 정신적 고문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최씨의 어머니는 그가 “구속 이후 한달만에 백발십도로 바뀐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옛날의 우리 동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상상을 못하겠어요. 반드시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80년부터 10년간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투신해온 최 동씨. 그의 죽음은 ‘도덕적으로 승리하는 길’을 선택한 이 시대의 양심적인 사람에겐 가해진 부도덕한 정권의 꺾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최 동씨의 죽음이 결코 패배적인 발상이 아님을 박형규 목사는 장례식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배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굴복하며 살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의에 맞설 힘이 없었던 최 동 열사는 무릎을 꿇기보다는 마지막 싸움의 무기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